
Issue Briefing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20140820 vol.134

‘한국 속의 한국’ 개념과 全北學의 중요성

실체적 개념화를 위한 ‘전북의 논리’ 필요

연구진

장 세 길 (문화관광연구부 부연구위원)

이 민 수 (농업농촌연구부 연구위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Issue Briefing

C O N T E N T S

‘한국 속의 한국’ 개념과 全北學의 중요성 실체적 개념화를 위한 ‘전북의 논리’ 필요



1. ‘한국 속의 한국’ 이란?	4
1) 민선6기 비전으로서 ‘한국 속의 한국’	4
2) 개념의 정교화를 위한 과제	5
2. 한국문화의 뿌리 ‘쌀문명’ 과 전북	5
1) 쌀문명과 한국문화	5
2) 한국쌀문화의 중심으로서 전북의 대표성	6
3) 쌀문명의 미래융합전략과 민선6기 핵심전략	7
3. ‘한국 속의 한국’ 의 확장된 개념(안)	8
1) ‘한국 속의 한국’ 의 개념의 확장	8
2) ‘한국 속의 한국’ 의 가치와 핵심전략	9
4. ‘한국 속의 한국’ , 전북학(全北學) 정립부터	10
1) ‘한국 속의 한국’ 에 대한 ‘전북의 논리’ 로서 전북학	10
2) 새로운 지역학 패러다임에 맞는 ‘전북학 2.0’ 필요	11
5. 전북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13
1) 민선6기 핵심전략별 ‘전북의 논리’ 정립	13
2) 전북학 연구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14
3) 전북학의 사회화 : 연구성과의 대내외적 확산	15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4년 08월 20일 vol.134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한국 속의 한국’ 개념이 도정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개념의 정교화가 필요함. 한국 쌀문명의 중심이 전북이라는 사실에서 ‘한국 속의 한국’의 논리를 찾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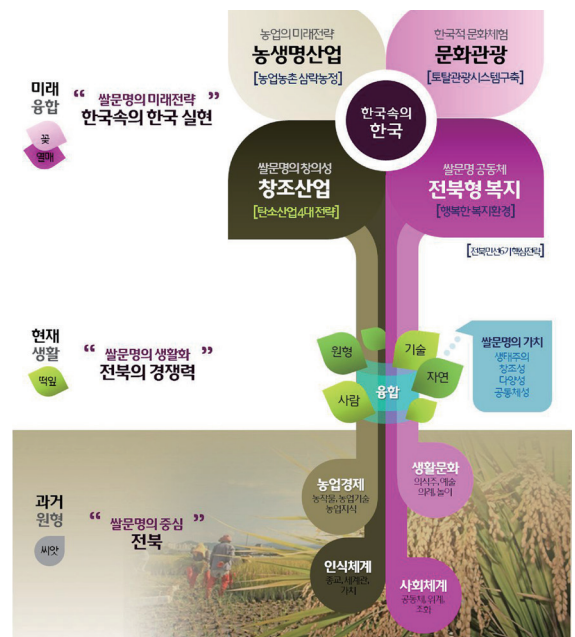
- 호남평야는 한국농업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전북은 동아시아 쌀문명권의 거점이면서, 한국쌀문명의 발상지이자, 쌀문명에서 형성된 쌀문화 즉, 한국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음

○ 쌀문명권을 근간으로 민선6기의 비전인 ‘한국 속의 한국’ 개념과 가치, 그리고 핵심전략의 연관성을 새롭게 개념화 할 수 있음

- ‘한국 속의 한국’이란 “한민족의 뿌리인 쌀문명의 중심지이자, 쌀문명에서 형성된 한국 민중문화의 원형을 보존하고, 이를 향유하는 대표지역이면서, 동시에 쌀문명의 인식체계, 생활문화, 사회체계, 경제수단 등의 원형을 자연, 사람, 기술과 창조적으로 융합함으로써, 쌀문명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국내·외 중심”으로 정의함

- 쌀문명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 속의 한국’은 자연과 조화를 통한 생태주의, 자연·사람·기술의 융합을 통한 창조적 활동, 공동체성, 문화다양성을 주요 가치로 삼음

- ‘한국 속의 한국’의 핵심전략은 쌀문명의 핵심요소인 경제수단(농업), 생활문화(한문화), 인식체계(창조성), 사회체계(공동체)와 각각 대응하는 ‘농생명’, ‘문화관광’, ‘창조산업’, ‘전북형복지’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임



○ 전북이 ‘한국 속의 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으로 ‘한국 속의 한국, 전북’을 인정할 수 있는 ‘전북의 논리’, 즉 전북학의 정립이 필요함

- 기존 전북학연구는 자료학적 성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음. ‘한국 속의 한국’ 실현을 위한 전북성(Jeonbukness)의 재해석을 통해 이론적·실천적 논리를 개발하는 ‘전북학 2.0’이 필요함

- 타 지역에서는 지역성을 재해석해 미래가치를 발굴하고, 지역상황에 맥락화하는 연구가 활발함

○ 전북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 첫째, ‘한국 속의 한국’의 논리만이 아니라, 핵심전략별 ‘전북의 논리’ 개발이 시급함

- 둘째, 전북학을 체계적으로 기획·관리·활성화할 수 있는 연구체계가 갖춰져야 하며,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 또한, 연구주체 간 네트워크화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전북발전연구원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됨

- 셋째, 연구성과의 대내외적 확산을 위한 ‘전북학의 사회화’가 이뤄져야 함

1. ‘한국 속의 한국’이란?

1) 민선6기 비전으로서 ‘한국 속의 한국’

■ ‘한국 속의 한국’은 6.4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정책공약에서 처음 등장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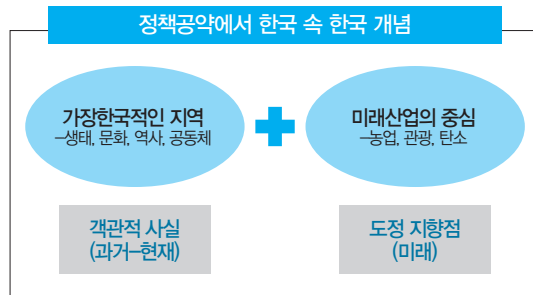
- 송하진 도지사는 후보시절 전북발전 비전으로 ‘사람과 돈이 모이는 전라북도 : 한국 속의 한국! 전북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겠습니다.’를 내세움
- 123개 실천사업 중 하나로 제시한 ‘한국 속의 한국 전북, 해외진출사업’을 보면, “전라북도는 ‘한국 속의 한국’이라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한국적 문화를 간직한 지역”이라고 설명하면서, “예향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전통음식, 한지, 한옥, 농경문화, 판소리 등 전통문화를 간직한 고장”이라고 표현함
- 이러한 설명대로라면 ‘한국 속의 한국’이 말하는 핵심대상은 전통문화임. 하지만 11대 실천전략인 ‘한국 속의 한국 문화에 술체육’에는 문화적 도시재생, 국제문화교류, 문화산업(콘텐츠, 한문화융합), 어린이박물관, 역사자원화, 예술행사, 스포츠이벤트, 생활체육까지 포함돼 있음
- 전주시의 ‘가장 한국적인 도시’가 전통문화 중심이었다면, ‘한국 속의 한국’의 핵심대상은 전통문화로 설정하되, 확대된 개념의 문화(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범위-문화(예술)/여가/체육)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2014.06.13)에서 ‘전북역사’와 ‘가장 한국적인 정서 및 이미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전북성(Jeonbukness)’의 발굴과 맥락화의 필요성을 강조함²⁾

- 역사가 강조되지 않은 한국문화는 있을 수 없다. 역사를 부각시킬 수 있는 노력을 통해 전라북도의 자존심을 회복 해야한다고 강조했으며, “한브랜드, 한스타일, 한국문화 등 가장 한국적인 정서와 가치를 강조하는 개념이 필요하며”, “한국적 정서와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전통과 관련된 1차적 유형의 자원보다 전북을 ‘한국 속의 한국’으로 부를 수 있는 전북성(Jeonbukness)을 발굴하고 미래지향적 가치를 찾아 ‘한국 속의 한국, 전북’으로 맥락화 하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임

■ 민선 6기 출범 이후 ‘한국 속의 한국’은 전북 캐치프레이즈로 채택되었고,³⁾ 주요대상으로 전통문화 외에 자연환경, 농업, 탄소산업 등이 포함됐음

- 전북도 홈페이지에 따르면,⁴⁾ 전북을 ‘청정한 생태환경, 전통문화 및 문화융성, 자랑스러운 역사, 창의적 솜씨와 공동체의식’이 있는 지역으로 설명함. 또한, ‘농도 전북의 농업’, ‘한국의 모습과 가치를 살린 관광’, ‘전북이 연구개발한 탄소섬



1) 송하진 도지사후보 정책공약집(2014.05) 참조

2) 당선인 업무보고자료(전북도 내부자료) 참조

3) 전북 민선6기 캐치프레이즈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

4) “훼손되지 않은 청정한 생태환경이 살아있는 곳, 전통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가 융성한 곳, 자랑스러운 역사가 당당하게 흐르는 곳, 바로 전라북도입니다. 여기에 전북인의 창의적 솜씨와 따뜻한 공동체의식이 있습니다. …… 오천년 농도인 전라북도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농업으로, 전라북도가 잘 간직해 온 한국의 모습과 가치를 살린 관광으로, 탄소섬유 연구개발로 이미 발전가능성을 확인한 탄소산업으로, …… 전북만이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북도 홈페이지 도지사 인사말)

- 유'를 '전북만이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 설명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국 속의 한국'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함
- 전북의 상징성을 '생태환경', '전통문화', '역사', '창의적 숨씨', '공동체'에서 찾고 있으며,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전북만의 대표성을 갖는 분야로 '농업, 관광, 탄소'를 제시하고 있는 것임

- 종합하면, '한국 속의 한국' 개념은 지방선거와 민선6기 출범과정을 거치면서 전북이 가장 한국적 자연환경·문화·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객관적 사실' 외에, 가장 한국적인 전북의 자원을 활용해 전북만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도정의 지향점'을 포괄하고 있음

2) 개념의 정교화를 위한 과제

- 첫째, 전북만의 정책적 개념이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실체적 개념이 되기 위해서는 '왜 전북이 한국 속의 한국인가?'에 대한 논리가 보강되어야 함
 - 전북에 전통문화지역 이미지가 형성된 것은 사실이나, 어느 지역을 가도 전통문화는 남아있으며, 특히 타 지자체에서도 전통문화의 중심임을 강조함. 오히려 조선의 수도였던 서울의 대표성이 클 것임. 즉, 후백제를 제외하고 한 번도 수도였던 적이 없는 전북이 어떻게 해서 한국을 대표하는지 설명되어야 함
 - '한국 속의 한국'은 한국적인 원형(과거)을 보유하면서, 한국적인 생활을 향유(현재)하고 있는 지역에서 한국적인 미래가치를 창출(미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임. '한국 속의 한국'이 실체적 개념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현재-미래 모두에 걸쳐 전북이 한국을 대표한다는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함
- 둘째, 전북 캐치프레이즈로서 민선6기를 총괄하기 위해서는 '한국 속의 한국'의 가치와 특성을 정립하고, 이를 주요시책에 반영해야 함
 - '한국 속의 한국'은 단순히 한국을 대표한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민족 고유의 정서와 가치를 활용해 미래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임
 - 한국을 대표하는 전북의 특성, 즉 전북성(Jeonbukness)을 찾아내 맥락화함으로써 전북이 강조하는 '한국 속의 한국'의 가치를 정립해야 함.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민선6기 주요시책에 담아내야 함
- 셋째, 민선6기 핵심전략(농업·관광·탄소)과 '한국 속의 한국'의 연관성을 밝혀야 함
 - 전북의 비전으로 '한국 속의 한국'을 내건 민선6기의 핵심전략은 농업, 관광, 탄소임. 이와 관련해 비전과 핵심전략의 연관성을 높여야 함
 - '한국 속의 한국'이 정책적 개념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선6기의 핵심전략인 농생명, 토탈관광, 탄소산업이 '한국 속의 한국'이라는 비전과 무관하지 않으며,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계열적 개념 속에서 수립된 목표이자 전략인 점을 연관지을 수 있어야 함

2. 한국문화의 뿌리 ‘쌀문명’ 과 전북

1) 쌀문명과 한국문화⁵⁾

■ 세계문명은 쌀·밀·유목문명으로 구분되며, 한국은 동아시아 쌀문명에 속함⁶⁾

○ 동아시아에서 쌀은 단순한 물질적 생존의 차원을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인간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상징적 표상임. 특히 쌀문명은 인간관계와 사회구조 및 문화양식의 측면에서 밀문명과 차별화됨

- 밀문명권은 이동하는 밀경작 방식으로 점차 자연정복 정신을 키웠지만, 쌀문명권은 문순기후에 의존한 논농사로 장기 거주가 가능해지면서 자연에의 순응정신이 강화되고 지역공동체가 강조됨. 특히 장기정착에 기초한 사회관계, 문명발전, 강력한 마을공동체 등이 형성됨
- 쌀문명권은 지역신, 조상신 등이 강하나 초월적 절대자(하나님, 알라)는 약하고 추상적임. 불교와 유교에는 절대신이 없으며, 철학, 삶의 지침, 계몽, 윤리 등이 핵심임. 이에 반해 이동하고 남의 농지를 빼앗아야 2~3년마다 밀경작이 지속가능한 밀·유목지대에는 지역을 넘어서고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는 절대신이 훨씬 강하게 숭배됨
- 쌀문명권은 자급자족성이 높아 타 국가 침략보다 국가자체의 질서와 생산 확대에 집중했으며, 영토 확대보다 상하 질서 확립에 관심이 많음

〈표 3〉 쌀·밀·유목 문명의 비교 (이정덕(2011) 참조)

분류	쌀문명	밀문명	유목문명
지역	동아시아+서남아	중동+유럽+북아프리카	농경지대의 북부지역
핵심작물	벼, 기장, 조, 콩, 아채	밀, 보리, 콩	가축
핵심음식	밥과 반찬	빵과 고기	고기와 젖
기술기어	나침반, 종이, 인쇄, 화약, 도자기	바퀴, 水車, 유리, 戰車, 기하학	청동기, 철기, 기마군
토지	평평한 논, 높은 생산성, 많은 노동력 투입, 높은 공동 노동	표면 약간 경어 경작, 낮은 생산성, 적은 노동력, 개별 농경	있는 그대로 초지 활용 방어위한 집단 결집
정착성/이동성	가장 정착적인 생활, 혈연조직 가장 발달, 땅과의 유착도 높음	정착/이동 중간, 혈연조직 점차 약화, 토지 이동 전쟁 빈번	이동생활, 혈연집단의 이동, 빈번한 침략과 약탈
종교	多神(4물신, 용) → 天神(현실강조), 氣道緣起輪廻(관계강조)	多神→태양신(현실강조) → 정복적 창조주(배타성·초월성 강조)	多神 → 天神(현실강조) 결국 농경종교가 득세
주 종교	유교, 불교, 힌두교	기독교, 이슬람	이슬람, 불교
자연/사람	사람은 자연의 일부	자연은 변형 대상	사람은 자연의 일부
핵심 사상	종교+현실+기술 융합	종교 득세 과학 득세	종교+현실+기술 융합
국제관계	간접 지배, 조공	직접 지배적 경향	직접 지배적 경향

■ 주곡(主穀)인 쌀의 생산과 소비과정을 통해 한국문화와 정체성이 형성됨

○ 쌀농사는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자연의 도움이 필요함. 이런 이유에서 하늘의 뜻을 중요하게 섬기는 세계관이 형성됐고, 자연의 이치에 순응해 사는 지혜를 터득함. 즉, 쌀문명은 한국인의 가치와 규범, 예술과 사상 등 인문학적 지평으로 확장되었으며, 종교와 민속 등 한국인의 삶 자체를 규정하게 됨

5) 전북대학교 쌀·삶·문명연구원(2007) "인문한국지원사업 인문분야 신청서"와 이정덕(2011) "인간학: 인류와 문화"(강연자료, 미발간)를 참조해 정리함

6) 쌀문명은 히말라야 남쪽과 동쪽에 해당하는 동·서남아시아지역을 포함함

- 쌀과 건축(초가집, 기와집, 고택), 쌀과 음식(밥과 반찬, 발효식품, 막걸리, 떡), 쌀과 신앙(조상숭배, 제사, 당산나무, 가택신앙, 무속), 쌀과 놀이(농악, 목발놀이, 정월대보름놀이, 단오제, 삼동놀이), 쌀과 의례(관혼상제, 24절기, 술매이), 쌀과 공예(짚풀공예), 쌀과 풍경(다랑이논, 지평선), 쌀과 사상(풍수지리, 절의), 쌀과 마을, 쌀과 혁명(동학농민혁명) 등)
- 숙련된 노동력의 집중이 필요한 쌀농사로 인해 공동체적 경작관행, 협동과 상부상조의 정신이 형성됨. 밀문명과 달리 쌀문명이 개인보다 공동체가 우선하는 가치를 갖게된 이유임. 또한, 분배의 공정성 여부는 공동체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쌀의 소비 역시 공동체적인 위계질서를 동반함

2) 한국 쌀문화의 중심으로서 전북의 대표성

■ 한국은 호남평야를 중심으로 남다른 쌀문화를 형성했으며, 그 중심이 전북임

- 호남평야는 중국의 양쯔강 삼각주, 일본의 동북 지역, 베트남의 메콩강 삼각주, 자바의 동남부 지역 등과 함께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작지대 중 하나임
- 과거부터 현재까지 최대의 곡창지대인 호남평야는 동아시아 문순지역의 선진적인 도작지대로서의 특징을 보여줌. 또한, 높은 인구밀도와 비옥한 생산력을 바탕으로 공동체 생활이 짜여진 독자적인 농경문화를 보유했음
 - 한국 최초의 거대저수지 벽골제가 있는 지역으로, 조선 시기에 가장 많은 쌀을 생산한 지역임. “만약 호남이 없다면 국가도 없다(若無湖南 是無國家)”는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말씀이 호남평야의 중요성을 상징함
- 이와 같이 호남평야를 간직한 전북은 동아시아 쌀문명권의 중요한 지역이면서, 한국쌀문명의 발상지이자, 쌀문명에서 형성된 쌀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음

■ 쌀문화는 쌀의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형성된 △경제(농업), △생활문화(의식주·예술·놀이), △인식체계(종교·가치·세계관), △사회체계(공동체·위계) 등의 하위문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북은 이러한 하위문화와 관련해서 대표성을 가짐

- 첫째, 쌀문명권의 기본적 경제방식은 농업으로, 전북은 예부터 지금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농도(農道)임
 - 벽골제는 우리나라 농경역사를 보여주는 유산이자 농경문화의 상징적 존재이며, 김제만경평야는 고대부터 ‘대평(大坪) 속칭 김제(金堤) 만경평(萬頃坪)’ (신증동국여지승람)이란 별칭으로 지리적 특성이 정의됐으며, 전국 제일의 곡창지대인 호남평야 중심임⁸⁾
 - 전북 농가 수는 2011년 현재 약 10만 5천 가구로 전국 농가의 9.0%를 차지하며, 농림어업 분야 부가가치는 전체의 12%를 차지함. 농가당 농업소득은 2011년 현재 전국 1위임
- 둘째, 전북은 쌀농사에서 형성된 민중의⁹⁾ 생활문화 및 예술문화의 원형을 보존 및 계승의 대표지역임
 - 전통음악공연 개최 및 연간 평균관람률·관람횟수 전국 1위(2010), 지정문화재 전국 광역단체 중 2위(756건), 판소리·풍물의 본향, 태권도의 중심, 380년의 대사습놀이 등
- 셋째, 쌀문명권의 인식체계는 자연과의 조화, 현실과 기술의 융합 등 창조성이 강조됨. 전북은 자연·사람의 조화를 강조하는 한국종교의 대표발상지이면서, 창조성의 핵심인 인문·예술이 발달한 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창조성이 두드러짐
 - 도 단위 지역 중 가장 많은 문화건강층 보유(31.9%) : 문화역량지수, 지역문화역량 수준 높음을 의미함(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2)

7) 이정덕(2011), “도작문화권에 대한 노트”(미발간) 참조

8) 김제는 통계청이 아리랑 2호로 원격탐사를 통해 전국단위 경지를 조사한 결과 논 면적 23,451ha로 전국에서 가장 논이 넓은 지역으로 조사됨(통계청, 2012년 경지면적 조사결과 보도자료)

9) 민족의 문화를 설명하는 방식에는 △ 지배집단의 문화에, 왕실/양반문화를 내세우거나, △ 민중의 문화를 대표문화로 설명하는 방식이 있음. 그런데 현재 한국문화라고 이어져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문화(전통)는 민중의 생활문화임. 즉, 한국문화라 함은 민중의 문화를 뜻하며, 왕실의 문화는 한국문화의 하위문화로 이해되어야 함

- 예술창조계층 보유 전국 3위 (경기 1위, 경남 2위) : 입지와 인구 면에서 수도권에 속해 있는 경기도, 부산·울산과 가까운 경남도(6,000명)와 비교 시 전북은 경쟁력을 보유함
- 넷째, 쌀문명권의 사회체계는 공동체가 핵심임. 산업화에 뒤쳐진 전북은 무형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고, 전통적 공동체가 상대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음
 - 무형문화유산 보유 개수 3,625건으로 전국 1위 (2012.10 현재, www.ichpedia.org 참조)
- 이와 같이, 전북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농업경제, 생활문화, 인식체계, 사회체계 영역에서 한국쌀문화의 중심으로서 대표성과 경쟁력을 지님

3) 쌀문명의 미래융합전략과 민선6기 핵심전략

■ ‘한국 속의 한국’의 뿌리를 쌀문명에서 찾게 되면 민선6기가 내세운 3대 핵심전략(농업·관광·탄소)이 ‘한국 속의 한국’ 비전과 무관하지 않음을 설명할 수 있음

- 쌀문명권은 자연, 종교, 기술 등을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창조성이 강조됨. 특히 밀문명권의 약탈지배적 방식의 폐해로 각종 문제가 불거지면서 쌀문명권의 융합과 조화를 통한 생태주의적 관점과 창조적 태도가 중요해짐
- 전북 역시 문화원형, 자연·사람·기술의 조화와 융합, 생태주의적 관점에 기초해 쌀문화의 핵심요소를 미래융합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함. 민선6기가 내세운 농업·관광·탄소가 ‘한국 속의 한국’과 무관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음

■ 민선6기 3대 전략은 쌀문화라는 공통의 뿌리에서, 문화의 원형과 자연, 사람, 기술을 융합한 미래 전략임

- 첫째, 삼락(三樂)농정은 전통적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생산, 가공, 체험을 결합한 전북형 6차 산업모델 개발, 쌀문화에서 형성된 음식문화의 식품산업화, 농업과 의료의 융합화 등 농업·농촌을 미래의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임
- 둘째, 토탈관광(관광)은 쌀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의 생활문화(의식주), 예술문화, 놀이문화 등 가장 한국적인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자원, 지역을 하나로 연계하는 미래의 관광시스템임
- 셋째, 탄소산업은 쌀문명권이 가지는 융합을 통한 창조성,¹⁰⁾ 농경사회 의식주생활의 원천재로서 쌀산업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 전북 창조산업의 선도전략임
 - 탄소섬유는 현대산업의 씨앗인 철강을 대체하고 있는 핵심 산업소재로 의복, 건축뿐 아니라, 자동차, 항공기, 우주선 등의 최첨단 분야에서 활용됨. 이와 함께 탄소섬유는 골프채 등 스포츠 기구, 의료진단 장비 등 새로운 분야와 의 융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창조산업임

■ 쌀문명권만의 삶의 질 시대 전략으로서 ‘공동체 기반 전북형복지’도 ‘한국 속의 한국’의 핵심전략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음

- 공동체 기반의 사회질서는 밀문명과 차별화되는 쌀문명의 특징임. 한국사회의 복지체계는 밀문명권이 서구사회의 체계를 도입한 것임. 삶의 질 시대에 부합하면서 쌀문명권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전북형복지체계의 정립이 필요함

■ 민선6기 3대 전략(농업·관광·탄소)은 쌀문화를 뿌리로 하고 있으며, 쌀문화의 원형, 자연, 사람, 기술을 창조적으로 융합한 쌀문명권의 미래전략이자 선도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음. 다만, 삶의 질 시대를 선도할 융합전략으로 쌀문화의 특성(공동체)을 반영한 전북형복지가 핵심전략에 포함되어야 함

10) 자연과의 조화, 문화·사람·기술의 융합을 강조하는 창조성이 쌀문명권의 핵심적 특징임

3. ‘한국 속의 한국’의 확장된 개념(안)¹¹⁾

1) ‘한국 속의 한국’의 개념의 확장

- 쌀문명권을 근간으로 해서 민선6기의 비전과 목표, 이를 실현할 가치를 포괄하는 ‘한국 속의 한국’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보면 다음과 같음
- “한민족의 뿌리인 쌀문명의 중심지이자, 쌀문명에서 형성된 한국 민중문화의 원형을 보존하고, 이를 향유하는 대표지역이면서, 동시에 쌀문명의 인식체계, 생활문화, 사회체계, 경제수단 등의 원형을 자연, 사람, 기술과 창조적으로 융합함으로써, 쌀문명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국내·외 중심”으로 정의함

〈표 4〉 확장된 개념에 대한 설명

구분	설명
한민족의 뿌리인 쌀문명의 중심	한국문화의 근원을 쌀문명으로 규정하고, 중심임을 표현
쌀문명에서 형성된 한국 민중문화	왕실문화가 아닌 민중 문화를 한국문화의 근간으로 보고, 전북의 문화가 민중문화의 대표성을 갖는다는 점을 부각
원형 보존과 향유하는 대표지역	한국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대표하는 지역임을 의미
인식체계·생활문화·사회체계·경제수단	쌀문명의 하위문화이자 전북의 경쟁력
자연·사람·기술과 창조적으로 융합	쌀문명의 특성이자, 한국 속의 한국의 실현방향
미래가치 창출	쌀문명의 미래융합전략으로, 민선6기는 농업/관광/탄소를 강조
국내외 중심	국내 거점이자 국제적 거점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표현

2) ‘한국 속의 한국’의 가치와 핵심전략

- 쌀문명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 속의 한국’은 자연과 조화를 통한 생태주의, 자연·사람·기술의 융합을 통한 창조적 활동, 공동체성, 문화다양성을 주요 가치로 삼음
- ‘한국 속의 한국’의 핵심전략은 이러한 가치를 토대로 쌀문명의 핵심요소인 경제수단(농업), 생활문화(한문화), 인식체계(창조성), 사회체계(공동체)와 각각 대응하는 ‘농생명’, ‘문화관광’, ‘창조산업’, ‘전북형복지’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임

〈표 5〉 쌀문명의 영역별 미래융합전략과 민선6기 선도사업의 연계

쌀문명의 하위영역	미래융합전략	민선6기 선도사업
경제수단(농업)	▶ 농생명 산업	▶ 농업농촌 심락농정
생활문화(한문화)	▶ 문화관광	▶ 토탈관광 시스템 구축
인식체계(창조성)	▶ 창조산업	▶ 탄소산업 4대 전략
사회체계(공동체)	▶ 전북형 복지	▶ 행복한 복지 환경

11) 여기에서 제시되는 개념 및 전략은 논의의 확장을 위해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한 것임을 밝혀둠



<그림 1> '한국 속의 한국' 과 민선6기 핵심전략 개념도

4. ‘한국 속의 한국’, 전북학(全北學) 정립부터

1) ‘한국 속의 한국’ 에 대한 ‘전북의 논리’ 로서 전북학

■ 전북이 ‘한국 속의 한국’ 이 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으로 ‘한국 속의 한국, 전북’ 을 인정할 수 있는 ‘전북의 논리’ 를 개발해야 함. 전북학이 필요한 이유임

- 지역학¹²⁾으로서 전북학은 전북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현재적 과제를 분석하여, 전북의 특성과 정체성을 발굴하고, 나아가 미래의 전북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전북이 당면한 시대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논리를 공급함
 - 예를 들어, 전주한옥마을이 전국적 명성을 얻었으나, 한옥산업체는 전남이 월등히 많으며, 한옥 수는 경북이 많음. 양적인 통계를 내세우거나 혹은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는 특정장소 하나만을 내세울 경우 전주가 갖는 전통문화의 대표성은 대외적인 명분을 갖기 어려움
- 전북의 과거와 현재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당면한 시대적 상황인 ‘한국 속의 한국’ 실현을 위한 전북만의 이론적· 실천적, 인문학적 논리를 개발함으로써 ‘한국 속의 한국’ 을 실제적 개념화 하는 것이 전북학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음

■ ‘전북의 논리’ 개발의 예시 : 왜 전북이 ‘한문화창조거점’ 인가?

- 전북이 한문화창조거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타 지역에서 수급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함. 이를 위해 연구진은 한문화창조거점으로서 전북의 경쟁력을 원형, 사람, 기술, 융합, 정책적 측면에서 정립하고 있음¹³⁾



〈그림 2〉 한문화창조산업에 대한 전북의 경쟁력

*참조: 이상열(2014), “한문화창조산업의 개념과 전북의 전략”, 『2014 전라북도한문화창조산업 국제컨퍼런스』

2) 새로운 지역학 패러다임에 맞는 ‘전북학 2.0’ 필요

■ 지역학은 지자체 시작(1995)과 더불어 등장했으며, 전북 역시 1996년부터 전북학 연구사업을 추진함

12) 지역학(Regional Studies)은 “연구주체가 포함된 지역에 대한 학적 접근”(구로룡 외 2011: 8)으로서, “각 지역의 언어를 토대로 해당 지역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등에 대한 실재와 이론을 연구하는 학문”(박용구 1996, 13-33)으로 규정함
 13) 확정된 개념은 아니며, 현재 논리를 보강하고 있음을 밝혀둠

- 1997년에 자연환경, 역사·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인물·미래 등 8개 분야에 걸쳐 전북의 과거와 미래를 조명한 총론적 연구 '전북학연구 I'를 진행했으며, 2000년부터 종교, 예술, 농업경제, 상공업 등에 대한 연구논문집을 발간하는 '전북학연구 II' 사업을 추진했음
- 하지만 학제별 자료학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끝으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음. 그러다가 2008년부터 기존의 학제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전북을 대표하는 문화요소를 중심으로 '전북의 재발견' 출판사업을 진행함
 - 2008년부터 지금까지 소리, 맛, 말, 쌀, 길, 흥, 영화, 문학, 흙, 떡, 얼, 예 등 12권 출간됨



〈1997년에 시작된 '전북학연구' 결과물〉



〈2008년부터 시작된 '전북의 재발견'〉

■ 전북학을 포함한 초기 지역학 연구는 국지적이고 부분적인 논의에 그치는가 하면, 지역의 당면한 상황을 해결하는 이론적·실천적 논리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드러냄

- 역사를 학술적으로 정리하거나, 실증적·통계학적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데 그쳐 지역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함
 - 자료학이 모든 지역학의 바탕이 되지만, 자료 그 자체로서 지역학을 대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침
- 지역을 지탱해 온 정신적 가치나 미래추구의 가치 지향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빈약하여, 지역발전 전략의 수립과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 이러한 한계를 봉착한 지역학 연구는 더 이상을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2000년 중반을 거치면서 새로운 형태로 다시 조명되기 시작함

■ 최근의 지역학은 과거에 대한 분석에서 현재, 미래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으며, 사회과학과 정책과학의 한계를 넘어 문화연구의 경향을 보임

- 지역이 당면한 상황을 돌파할 이론적·실천적 논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지역주민의 일상성에 관심을 갖거나, 지역의 미래를 전망함¹⁴⁾
 - 지역적 삶의 일상성을 해부하거나, 지역의 이미지를 서술하고, 지역의 대중문화를 기술하며, 지역공간의 문화정치학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남

14) 구모룡 외(2011), 『부산학과 미래도시 부산』(부산발전연구원) 참조

서울연구원의 '미래서울 연구총서' 15)

- 서울연구원은 「미래서울 연구총서」 총 15종을 완간하여 현재 주요 서점을 통해 시판하고 있음
- 「미래서울 연구총서」는 삶의 질 중심의 포스트성장 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서울의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기 위해 기획되었음.
- 이 시리즈는 서울의 미래를 관통하는 15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행복도시, 재활용도시, 전환도시, 도시농업, 협동조합도시, 인권도시, 보행도시, 혁신도시, 공동체도시, 건강도시, 고령도시, 소통도시, 책 읽는 도시, 투명사회정보도시, 산악문화도시의 15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민선6기의 비전인 '한국 속의 한국'의 실현을 위한 전북성(Jeonbukness)의 재해석을 통해 이론적·실천적 논리를 개발하는 '전북학 2.0'의 추진이 필요함
 - 기존의 '전북학연구'는 자료학적 측면에서 과거의 기록에 그치거나 전북성을 재해석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음. '전북의 재발견' 역시 전북성의 재해석이 미흡함. 또한, 전북의 재해석을 통해 당면한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는 이론적·실천적 논리를 정립하지 못함으로써 미래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하지 못함

5. 전북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1) 민선6기 핵심전략별 '전북의 논리' 정립

- 전북문화(한문화), 토탈관광, 농생명, 전북형복지, 창조산업 등과 관련해서 '전북이 한국을 대표하는 논리,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부문별 특성'을 정립해야 함
 - 우선적으로 쌀문화권과 연계하여 전북의 문화를 정립하고, 이와 관련해서 민선 6기 핵심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인문학적 논리를 정립해야 함
- '한국 속의 한국'을 위한 논리는 지방주의적 해석을 경계하되, 전북의 특성이 한국을 대표한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수긍할 수 있도록 학술적 논리개발이 필요함
 - 전주음식창의도시 신청 당시 외부 연구진에 의해 정립된 전주음식의 대표성과 주요 특성을 참조할 수 있을 것임
 - 기존에는 전주음식을 말하면 전주집미, 비빔밥, 콩나물국밥 등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을 이야기하거나, 선언적인 설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음. 왜 전주음식이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인지, '전주음식성'의 재해석을 통한 이론적·실천적 논리가 부재했음. 이와 관련해서 전주음식창의도시 신청시 정립한 전주음식의 특성이 좋은 본보기일 것임

15) 서울연구원 홈페이지(<http://www.sire.kr>) 참조

전북학의 정립방향: 전주음식 사례 16)

- 이 연구에서는 전주음식이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인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함
- 첫째는 가정음식에서 출발했다는 점임
 - 한국문화를 백성의 문화라고 할 때, 백성의 음식문화는 당연히 가정식에서 출발함. 프랑스요리 등 궁중요리를 기반으로 하는 타 문화의 전통음식과 전주음식이 대조되는 지점임
- 둘째는 브리콜라주(bricolage)¹⁷⁾
 - 전주음식이 가정식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전주음식이 브리콜라주(bricolage) 음식이라는 것임. 특정계층의 취향이 아닌 민간의 취향과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식문화라는 점에서 전주음식은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문화자산으로서 가치를 지님
- 셋째는 전주사람은 맛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것임. '개미가 있다'는 표현에 주목함
 - 1928년 매체 보도: 서울여성들은 마루 세간에, 평안도와 황해도여성들은 침구에 정성과 관심을 쏟는데 전라도여성들은 간장과 된장과 고추장 등을 만들고 익히고 보관하는 장독대에 관심이 많음
- 넷째는 전주음식이 역사적으로 한식을 대표해 오고 있다는 것임
-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전주음식문화를 '정성어린 음식(sincere food)'으로 재해석하고, 주요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립함
 - ① 건강식품인 콩을 다양하게 활용, ② 발효음식이 중요한 기반, ③ 김치와 나물 등 높은 채식 비중, ④ 쌀 문명의 대표인 전주음식, ⑤ 특정계층에 속해 있지 않은 민중음식이면서, 창의적인 음식, ⑥ 음식의 동반자로서의 장소, 음악, 공예 발달

2) 전북학 연구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 개별 연구 및 개별 연구자를 하나로 묶는 연구체계를 시급하게 갖춰야 함

- 전북학 연구결과의 확산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전북학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을 하나로 이을 수 있는 연구체계를 재정비해야 함
 - 전북학 연구를 종합적으로 기획·관리하는 중심으로서 (가칭)전북학센터를 설립하고, 연구기관과 연구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북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개별 연구자가 전북 관련 자료, 통계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축적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예, 전북학 정보자료실) 구축이 중요함

■ 전문 연구자의 육성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연구지원 사업이 필요함

- 전북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문연구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전북도 차원에서 전북학 연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 다만, 전북학 연구지원을 위해서는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북학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단위에서 전북학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한 뒤 추진해야 함
- '전북학 2.0'에서는 자료학적 접근보다는 전북의 미래가치를 찾아 당면한 상황에 맥락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 연구주체 간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전북발전연구원의 역할이 요구됨

- 각 대학, 민간 연구기관 등에서 전북학과 관련해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전북학 연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야 할 전북발전연구원은 전북학 연구와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고 있지 못함
- 전북발전연구원은 정책연구기관으로서 현안에 대응하고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역할이 중요하지만, 정책연구 기능과 더불어 전북학의 거점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16) 전주시(2011), 「전주음식 창의도시 기본구상」 참조

17) 브리콜라주(bricolage)는 구조주의인류학자인 레비-스트로스(Lévi-Strauss)가 강조한 개념으로, 브리콜리르(bricoleur, 브리콜라주 활동을 하는 사람)가 한정된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여 넓은 범위에 걸쳐 다양한 일을 창조적으로 수행하는 기술을 의미함

부산발전연구원의 '부산학센터' 18)

- 부산학센터는 부산학 연구방법론 구축, 부산학 연구발간 사업, 부산학 연구조성 사업, 부산학 연구지원 사업, 부산학 정보자료실 운영, 학제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부산문화정책연구, 지역향토문화의 창달과 예술진흥, 부산학 대시민 홍보사업 등을 추진함
- 부산학 교양총서, 부산학 연구논총, 부산학 기획연구 등의 현대로 연구결과물을 축적함



3) 전북학의 사회화 : 연구성과의 대내외적 확산

■ 전북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도민의 정확한 인식이 전북학 활성화와 '한국 속의 한국' 실현의 원천임

- 전북학이 '한국 속의 한국'에 대한 전북의 논리를 개발하고, 미래 전북의 발전을 위한 대안과 비전을 도출해 낸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들이 도민에게 퍼져나가지 않는다면 전북학은 실천적 특성을 상실하게 됨
- 이와 관련해 필요한 것이 전북의 역사와 정체성, 현재의 전북이 가지고 있는 긍·부정적 모습부터 '한국 속의 한국'과 관련한 실천전략들의 논리까지 전북학 연구성과를 확산하는 전북학 연구성과의 사회화임
- 도민이 전북학 성과를 쉽게 습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음
 - 연구 성과물에 대해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문적 결과와 도민적 실천이 하나가 되도록 연결하여야 함.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연구 결과물을 도민이 접근하기 용이한 형태의 매체로 제작을 하거나, 서점 등에서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강좌를 개최하여 전북학의 연구 결과를 확산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야함

■ '한국 속의 한국'에 대한 대외적 확산을 위해서는 전북학 연구성과에 대한 학술적, 마케팅적 활동이 필요함

- 세계적 석학 등을 초청한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해 학술적 논리를 강화함
 - 예를 들어, 세계적인 음식학자를 초청해 가정음식 중심의 전주음식이 갖는 세계적 중요성과 한국음식의 대표성 등을 학술적으로 해석하는 자리를 마련함
 - 전북 농업의 기반과 농민, 현재 전북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생명산업의 내용이 한국농생명을 대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 것임
 - 전북에서 체험하는 한(韓)문화가 가장 한국적 가치를 담고 있음을 보여주는 논리를 개발하고 홍보·마케팅을 추진함 : (예시) 한국적 의식주를 체험하는 한옥스테이 모델을 개발해 시군에 공통으로 적용하고 이를 마케팅함
- 정책공약인 '한국 속의 한국 전북, 해외진출사업 전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 외국인과 재외동포가 한국을 만나는 첫 장소인 해외문화홍보원, 재외공관, 세종학당 등에 전북문화를 홍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전북문화의 한국적 대표성을 강화함

■ 도 교육청과 연계해 전북학에 대한 정규 교과과정을 개발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의 전북형 특화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북인'의 정체성을 함양시킴

18) 부산발전연구원 홈페이지(<http://www.bdi.re.kr>) 참조

이슈브리핑
Issue Briefing



전북발전연구원

560-86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063-280-7100 Fax.063-286-9206

www.jthink.kr